

전북대, 중기부 '창업중심대학' 선정

패키지사업 5년간 400억원 지원· 7년 연속창업지원사업 선정... 전주기· 전방위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호남권을 대표하는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사업'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을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1개씩 총 6개 내외를 지정, 패키지(예비초·가도약)사업을 5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전북대는 2015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이후 7년 연속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되면서 창업 사관학교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특히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교육부, 과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중기부), 이노폴리스캠퍼스(과기부) 등 4개의 창업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내 권역 창업보육센터(중

기부)의 전문보육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전방위 창업지원 체계를 갖췄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창업지원 인프라에 전북도와 전주시와의 협력 등을 통해 호남권역 예비창업자부터 초기창업기업, 도약기업까지 사업화 자금과 관료 확대를 위한 마케팅 기업 고도화 성장을 위한 투자 등 단계별 특화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청년창업기업

및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도모해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대 창업지원단장은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청년창업 및 권역 우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융합기술 창업을 통해 스타기업을 배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호남권역 창업 중심지로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 대전환 이뤄낼 것"

서거석-전북교육사노조, 교육정책 발굴 머리 맞대 전북교육 대전환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을 위해 전북교육사노조와 머리를 맞댔다.

서 예비후보는 14일 정재석 위원장(전북교사노조)과, 유치원·초·중·고 및 특수학교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서 예비후보와 전북교사노조는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과 진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운영, 기초학력전담교사제 도입,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방과후돌봄센터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학교업무무형 지원센터 운영, 교육지원청별 수업지원교사제 실시, 교무학사전담

교사 도입 등 학교교육과 업무지원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 폐지, 교육인권센터 설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등 학생, 교원 등 교육주체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임기제 장학사 도입과 관료제 탈피 방안, 그리고 교감 추천 후보 배수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교육문화로 변화해야 전북교육의 대전환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융합인재교육 수업지원단 공개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STEAM(융합인재교육) 수업을 희망하는 도내 초·중·고교 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도내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STEAM 수업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업지원단은 초등·중등 교원 중 STEAM 지도 역량을 갖춘 전문교원 가운데 신청을 받아 12명으로 구성된다.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소양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수업지원단은 도내 STEAM 선도학교 STEAM 활성화 지원 학교, 학교 내 무한 상상실 STEAM 교사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STEAM 수업과 관련한 주제 선정과 구성·실현 등 전반적인 컨설팅, STEAM 수업 자료 개발, 관공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수업 등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STEAM 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며 "수업지원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STEAM 수업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4일 전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협약

올 회계년도 기본급 인상 등 협의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4일 전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양측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용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18,000원 인상 ▲근속근무 10년 차 기준 근속수당 월 4만원 인상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를 지급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용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메타버스 기반 성과공유확산 발표회

전주비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기반한 비교과 프로그램인 '창의융합 교수학습동아리' 성과공유확산 발표회를 가졌다.

지난 11일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2021학년도 '창의융합 교수학습동아리'의 성과 공유확산 발표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라는 가상공간에 들어온 8개팀 20명이 각자 웹파일 콘텐츠를 전시했다.

전주 교수(물리치료학과)는 "처음에는 낯설어서 대면 성과공유 발표회보다 더 번거롭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프랜드라는 가상공간에서 발표를



듣고 의견 공유를 진행하니 동기유발에 좋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올해 수업에도 적용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더 높이고 싶다"고 전했다.

또 김나리 교수(유아교육과)는 "코로나9 장기화로 이제는 비대면이 많

이 익숙해졌다"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성과공유 확산 발표회도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Zoom 플랫폼과 달리 실제로 내가 발표공간에 참석한 느낌이고, 다학제간 연구와 활동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영임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성과공유확산 발표회를 진행, 앞으로도 학교에서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 플랫폼들을 활용해 교직원과 교직원, 교직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 상호작용을 통한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호남제주권 전문대학 온라인 성과확산 엑스포 개최

전주비전대, 메타버스 활용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14일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와 함께 '2021 호남제주권 전문대학 온라인 성과확산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호남제주권 4개 대학이 모여 전문대학 LINC+사업 등 대학별 사업성과와, 캠퍼스디자인 우수작품들을 모아 작품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공유협력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삼호 총장은 "호남제주권의 4개 대학이 모여 성과확산 및 공유를 위한 자리를 온라인에서나마 가질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확산·공유된 성과들을 비롯해 앞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대학들에게 소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